

佛 띠보 꼬망 클래식 기타 콘서트·인디영화 '윈스'의 만남

영화관의 아름다운 변신

영화관에서 영화만 본다고? 아니다. 오는 24일(오후 5시~9시)광주극장에서는 콘서트와 영화 상영, 다양한 이벤트가 동시발적으로 열린다.

광주극장 24일 '문화 이벤트'... 미술가들의 스넥바·편지쓰기 코너도

▲멋진 클래식 기타 선율-띠보 꼬망 콘서트 행사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순회 공연중인 클래식 기타리스트 띠보 꼬망(23)의 연주회를 문을 연다.

지난해 최대 화제작으로 떠오른 음악 영화 '윈스'를 대형 스크린으로 다시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지난해 아카데미영화제에서 '주제가상'을 수상하기도 했던 '윈스'는 특히 영화에 흐르는 음악에 매료된 관객들이 많아 OST 역시 10만장 가량 팔리며 대박을 터뜨렸다.



전국 순회공연 중인 프랑스 대표 클래식 기타리스트 띠보 꼬망.



지난해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주제가상'을 받은 음악영화 '윈스'의 한 장면.

한 필기 도구로 재활용 종이 편지와 엽서에 편지를 써보는 코너다. 우표는 극장 매표소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극장 내에 마련된 앙증맞은 가짜 빨간 우체통에 편지를 넣으면, 극장측에서 수

거해 '진짜' 우체통에 편지를 넣어준다. 티켓 가격 1만원(당일 현장 예매는 1만5천원), cafe.naver.com/cinemagwangju. 문의 062-224-585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제53회 호남예술제 본선 진출자

성악 초등 1, 2학년

심사위원 강양은 교수(호남신학대) 조수현 교수(광신대) 김철용 교수(목포대)

- 68 유태연(서광2) 69 이다인(광주송원1) 70 이지민(블로2) 71 이하민(울곡2) 74 김소연(블로2) 75 정예원(유안2) 77 주수영(유촌2) 85 김승경(광주송원2) 88 이재원(블로2) 92 이 건(유덕2) 93 김 승(금당1) 96 황건희(송정동1) 97 허수현(블로2) 100 김보경(화순만연2) 102 박한빈(미산1)

*위 순서는 예선경연 순서이며 발표된 순서에 의해 본선 경연을 합니다. 본선은 5월 15일(목) 오후 1시부터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진행합니다.

성악 초등 5, 6학년

- 6 천재원(목포청호5) 8 정소영(화순제일5) 10 박지희(울곡6) 15 김진술(풍영5) 16 이대원(살레시오6) 18 이하림(울곡5) 23 이수현(블로5) 27 김승술(광주송원5) 28 최수현(유안5) 29 조하원(광주백운6) 30 임유경(유안6) 31 이윤혜(광주송원5) 32 김정민(순천왕지5) 36 김리예(풍암6) 37 정다민(금당5) 42 김민선(풍영5) 46 조재윤(광주학운5) 48 송은지(광주송원5) 49 김 단(매곡5) 50 김정은(광주남5) 51 권성운(유촌6) 52 이혜은(광주남6) 53 김아린(블로5) 54 김도희(신암5) 55 서현선(광주수창6) 61 정은영(금당6) 66 박동진(송정동5) 67 서 건(블로6) 71 오윤지(살레시오6) 72 이홍민(광주남6) 73 강민정(광주대성5) 74 박정인(유안6) 76 김재민(수창5) 77 김다엽(본촌6) 80 허유민(살레시오6) 84 김다정(양지6) 85 박한솔(미산6) 86 유희원(본산5) 92 김건희(효덕5) *위 순서는 예선경연 순서이며 발표된 순서에 의해 본선 경연을 합니다. 본선은 5월 15일(목) 오후 3시 30분부터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진행합니다.

세계적 피아니스트 한동일 순천 공연

순천대 개교 기념 - 17일 문예회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한동일(순천대 석좌교수)씨가 순천에서 공연을 갖는다. 17일 오후 7시 순천문예회관. 순천대학교가 개교 73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이번 연주회에서 한 씨는 '피아노의 시인' 쇼팽과 베토벤의 작품을 들려준다.

태내기 시작했다. 1965년 제24회 레베트리트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 한국인 최초의 국제음악콩쿠르 입상이라는 기록을 세운 한 씨는 이후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 런던 필하모닉 등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을 통해 국제 클래식 음악계에 이름을 세웠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팝아트의 선구자 美 라우센버그 타계

팝아트의 선구자인 로버트 라우센버그(사진)가 12일 타계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향년 82세. 라우센버그는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해 미국으로 중심이 이동된 서양 미술사에서 잭슨 폴록(1912~1956)이나 마크 로스코(1903~1970)의 추상 표현주의와 앤디 워홀(1928~1987)이 이끈 팝아트의 중간 즈에 있는 작가다.



사물을 화면으로 끌어들이는 팝아트의 물꼬를 댔던 작가로 추상 표현주의와 팝아트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했다. 뉴욕 구겐하임미술관은 1997년 미술의 영역을 끝없이 확장해온 라우센버그의 대규모 회고전을 개최했으며 국내에서도 지난 2006년 12월~2007년 1월 서울 사간동 갤러리현대에서 작품전이 열린 바 있다. /연합뉴스

광주 옛 도지사 공관 다목적 전시관 된다

시립미술관 금남로 분관 이전 무산

광주시 서구 농성동 옛 전남도지사 공관이 다목적 전시관으로 거듭난다. 이에 따라 광주시립미술관(관장 박지택·이하 시립미술관) 금남로 분관을 도지사 공관으로 이전하려던 계획도 무산됐다. 13일 광주시는 "옛 도지사 공관 건물 전체를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구 도지사 공관 활용 계획 변경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으로 조성한다는 것이다. 시는 이번 주 중으로 변경안을 확정하고, 세부 운영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시가 직접 운영 ▲시립미술관 위탁 ▲민간 위탁 등의 운영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획 변경으로 6월에 개관 예정이었던 다목적 전시관은 9월에 개관할 예정이다. 금남로 분관은 이전계획을 전면 취소하고, 기존대로 시립미술관이 맡아 운영한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004년 옛 전남도지사 공관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191억 원에 매입해 시립미술관 상륙분관으로 활용할 계획을 추진해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movies and theaters. Includes sections for 'Happy Time 영화안내', '메가박스', '엔터 시네마', '콜롬버스 시네마', '씨너스 전대', '하미 시네마', and '제일 시네마'. Each section lists movie titles, showtimes, and theater information.